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서포터즈 4기

누군가의 불편에서 모두의 평등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불편에서_평등으로

모두를위한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hallym_hhrc

CARD NEWS TITLE 01

유니버설디자인(UD)



연령, 성별, 장애유무,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B/F vs UD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장애인 중심 편의시설
- 법적 의무 및 인증 제도
- 물리적 장벽 제거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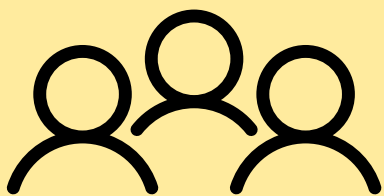
Universal Design

“모두를 위한 디자인”

- 모든 사용자를 위한 설계
- 선택이 아닌 필수 철학
- 심리적/감각적 배려 포함

비슷한 듯 다른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UD가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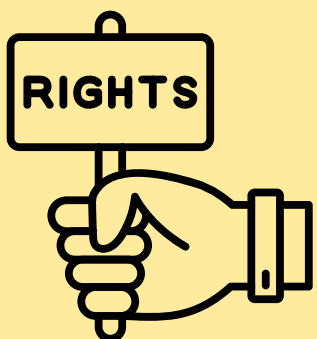
다양성 존중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생애주기 고려



사회적 비용 감소

->사고 예방과 시설 개보수 비용 절감



인권과 평등 실현

->참여의 평등과 물리적 장벽 제거

CARD NEWS TITLE 04

UD의 7원칙



공평한 사용



사용의 유연성



단순 직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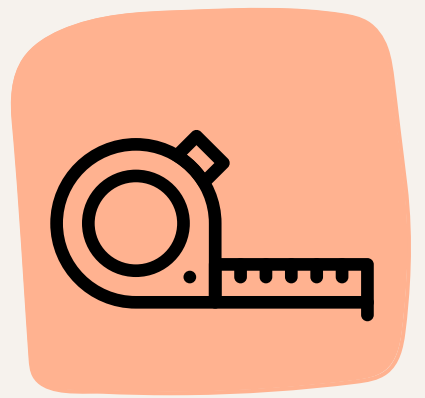
정보의 인지성



오류에 대한 포용



적은 물리적 노력



크기와 공간

CARD NEWS TITLE 05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가장 좋은 놀이터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약자'가 됩니다. **저상버스, 양손잡이 가위, 계단 대신 설치된 경사로**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모두가 당연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일상 속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